

2년 족쇄... ‘청년 공제’ 갑질에 시달려

정부지원금 ‘공돈’ 인식...임금삭감·괴롭힘 성행
“지원금 못 받을까 참는다”...업무 스트레스 폭발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근로감독 미비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따라 적립되는 정부지원금 등을 밑보리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직장갑질119와 광주고용복지플러스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지자체 등은 500여개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놓여있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유입과 핵심인력 장기 재직 유도, 노동자의 자산형성 등을 목적으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내일채움공제 누적가입자는 47만9,336명이며, 이중 광주 누적 가입자는 1만2,323명이다.

특히 가입자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4%로 일반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의 근속비율(48.3%)보다 월등히 높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근속’의 이면에는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 억지로라도 근속에 만가공제금을 타려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로부터 급여 삭감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청년공제 관련 이

메일 제보는 34건으로, 유형별로는 ▲갑질족쇄(24건) ▲퇴사강요(8건) ▲근로조건 악화(7건) 등이었다.

가장 많았던 ‘갑질족쇄’는 청년공제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함에도 신고 이후 사용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 업무 지시는 물론 ‘뒤태가 다리가 길어서 좋다’ 등 성희롱도 하지만 청년공제를 생각해서 버티고 있고 만기 후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공제 가입자 B씨도 “연봉 2,800만원으로 계약 후 입사를 했지만, 회사측에서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이유로 계약서는 연봉 3,000만원으로 작성하고 월급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후 매달 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에 돌려줬더니 애초 계약한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

고 있지만, 청년공제 기간이 족쇄가 돼만 기까지 괴로움을 견디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 이 모씨(25)는 “‘돈 받으니까 이것 좀 해’ 라고 하는 등 몇몇 임원진들의 행태를 보면 보면 청년공제 불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듯 하다”며 “깎은 야근에 부당한 지시 등 갑질이 있지만 만기까지 3개월 남았으니 참고 기다렸다 퇴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이익이 분명한 제도지만, 공제기간 이후에 노동자가 받게 되는 공제금을 ‘공돈’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가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노무법인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정책이 악용되고 실제 갑질을 당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 참는다’는 내담자도 있었다”면서 “기업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신문 발전기금 편취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직위 유지’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면서도 1심 형량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다”며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대책 마련해야”

시민모임 ‘맞벌이 가정 고충’ 실제 시민모임이 조사한 ‘관내 초등 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 매식(44개교)보다 개인 도시락(102개교)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름방학의 경우 매식과 도시락 중 선택권을 보장해준 일부 학교(5개교)도 존재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은 없앴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방학 중 급식은 개인 도시락을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위생·안전 문제를 이유로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돼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승현 기자

법무부, 검사 인사 단행
광주·전남 46명 전보

법무부가 고검 검사(부부장 이상)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 인사 17명

광주지검으로는 18명의 검사가 전보 조치 내려졌고, 목포지청과 장흥지청으로는 각각 4명, 1명의 검사가 자리를 옮긴다. 순천지청과 해남지청으로는 각각 13명, 2명의 검사가 내정됐다.

또, 법무연수원에서 신입검사 교육을

수료한 검사 8명은 각각 광주지검(5명), 순천지청(3명)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절실”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급증”
광주 준비위, 시청서 기자회견

광주·전남·제주의 아동·청소년·사회복지·대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광주유치준비위원회(이하 광주 준비위)가 광주시에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준비위는 25일 광주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은 코로나 19와 학업스트레스,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등으로 정서행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살·우울·분노조절·ADHD 등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계 전문가들은 광주시에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현재 디딤센터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북에는 이미 청소년 관련 국립시설이 2개소 있다”며 “반면 광주는 국립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광주유치준비위원회가 2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는 현재 관련 국립시설이 두 곳이나 있다며 광주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준비위는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지 선정은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며 “광주는 광주공항과 KTX 광주송정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호남을 비롯 제주에서도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과 지역의 청소년, 상담심리, 사회복지 관련 대학의 인적

자원 또한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광주유치준비위원회는 광주·전남·제주의 아동·청소년·사회복지·대학·시민단체 등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과 지역의 청소년, 상담심리, 사회복지 관련 대학의 인적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table><tr><td>광주</td><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td>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td><td>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td></tr><tr><td>전남</td><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td>010-6670-9800</td><td>010-6670-9800</td></tr><tr><td>시외</td><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td>010-6670-9800</td><td>010-6670-9800</td></tr></table>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010-6670-9800	010-6670-9800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010-6670-9800	010-6670-9800	010-6670-9800	010-6670-9800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010-6670-9800	010-6670-9800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010-6670-9800	010-6670-9800											